


보도자료		 <b>한국해양수산개발원</b>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21. 06. 07.(월) / 총 4매 (본문 3, 붙임 1)	
자료 제공	• 종합정책연구본부 지역균형·관광연구실 - 최지연 부연구위원 (051-797-4713) - 최일선 전문연구원 (051-797-4727)	
배포 부서	•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051-797-4381, 4384)	
보도 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a href="http://www.kmi.re.kr">www.kmi.re.kr</a>		

## KMI, KREI, KCTI 등이 모여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섬·바다의 가치 상생 방안을 논하다.

### - 제26회 바다의 날 기념 세미나 개최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장영태)은 제26회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2021년 6월 4일(금) 소노캄 거제에서 미래 해양성장의 거점으로 ‘섬’을 최대 활용하고 섬 주민과 도시민이 섬의 경제적·생태적·문화적 가치와 혜택을 교류·공유하기 위한 방향을 논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거제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문화관광연구원(KCTI),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 전문가와 경남 섬·어촌지역 리더 등이 모여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섬·바다의 가치 상생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 주제발표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김향자 선임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 섬 관광발전방향’을 주제로 섬관광 지원체계, 섬 관광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 섬지역 접근성 및 수용력 개선방안, 섬 지역 갈등 관리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홍장원 연구위원은 섬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해양치유 프로그램 및 모텔 마련, 포스트 코로나 시대 휴양 문화 대응 및 지역 주민 복지서비스 제공 등 ‘해양치유와 섬 관광의 연

계·활용방안'을 발표했다.

-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포용성장·균형발전연구단장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농산어촌의 지역활성화 관점을 가미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의 전국 확산, 지역 단위 통합적 사업 추진 체계 마련 등을 강조하며 '농산어촌 유토피아의 추진 경과와 도전 과제'를 제안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상우 어촌·어항연구실장은 어촌뉴딜 300과 수산혁신 연계를 통한 국토 외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 외곽지역의 장기적인 사회경제 변화 추적과 ICTs 기술 적용을 통한 어촌 현안해결(리빙랩) 등을 제안하였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섬, 관광, 어촌, 수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와 경남 섬·어촌 지역주민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양위주 부경대학교 교수는 현재 섬 정책이 육지와 섬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는 섬 고유 생태계 및 생활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며 4차산업혁명을 통한 섬의 연결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김준 광주전남연구원 섬발전지원연구센터장은 섬마을, 연안과 바다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초단위의 플랫폼을 제안하였고, 윤미숙 경상남도 섬보좌관은 섬주민의 입장에서 여객선 공영제의 이행 시급함과 불법 잠수기어업 등에 관한 근절대책 등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최일선 KMI 전문연구원은 현 해양관광과 섬관광의 개발방향이 인프라 구축 사업 위주임을 비판하며, 정책의 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하여 특히 MZ 세대 소비자 트렌드 반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전준철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장은 구체적 섬 관광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초기단계의 섬 관광 방향제시를 위해 우선순위를 선정한 체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이어서 경상남도 섬·어촌지역 주민들이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제시하였다. 특히 관광객의 수요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고려의 필요성, 청년 관광객의 트렌드를 반영한 정책 추진, 어촌뉴딜 300 사업의 양질의 정책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예산관리의 투명성 제고, 지역주민 교육제도의 차

별화 등을 제안하였다.

- 장영태 KMI 원장은 섬과 어촌의 현장형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섬·해양 경제의 혁신공간, 섬·해안문화·치유공간, 건강하고 안전한 어촌 생활공간 재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상호교류를 통한 지역 주도의 발전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장영태 KMI원장은 섬·어촌뉴딜과 농산어촌 유토피아 정책추진에 있어 상향식(bottom-up)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빅데이터를 활용을 통한 정책사업의 효과 증명과 지역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KMI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섬-바다-어촌이 서로 상생발전하고 섬·어촌 공동체 중심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지역균형·관광연구실 최일선 전문연구원(051-797-4727, ilsunchoi@kmi.re.kr)에게 문의 바랍니다.

<붙임1> 제26회 바다의 날 기념 기념세미나 사진



행사장 전경



개회사 (장영태 원장)



환영사 (박환기 부시장)

주요인사 기념촬영